

여성다움을 나타내는 어휘의 의미구조*

강 소 영
(이화여대)

<Abstract>

Kang, soyeong, 2009, The study of lexical items that represent the characteristics distinguishing women from men. *Korea Semestics*, 30. There have occurred changes in the representation of women presented by society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new order of values since the beginning of modern times. This paper has investigated certain lexical items that represent the characteristics distinguishing women from men, i.e., ‘femininity,’ and analyzed their meanings under the assumption that changes in people’s recognition of women are reflected in language. As a result, I have classified *chakhada*, *sunsuhada*, *cheongsunhada*, *danahada* and *uahada* as lexical items describing [-internal and external beauty]. While classifying *cheongsunhada* as a lexical item that has the restriction of [+girlish], I have classified *sunsuhada* as a lexical item that has the restriction of [blank] among *chakhada* that represented [-external beauty]. On the other hand, I have sorted out *areumdapda* and *yeppeuda* as having no limitations with respect to gender and age and having general meanings. I have presented them as generic lexical items. In addition, I have attempted at the systematization of other lexical items related to [±synesthesia], so I have presented *yamjeonhada* and *chamhada* as [-synesthesia], and *budeureopda*, *sangnyanghada* and *ttatteuthada* as [+synesthesia]. Also I have presented *sangnyanghada* as [Make a hearer feel good] and *budeureopda* as [Don’t be imposed]. Though the identical values that were placed under the traditional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1-AL0015)

familial ideology still exist after all, we can conjecture, from the aspects of using the representative lexical item (areumdapda) for the aesthetic consciousness drawn from the movement toward society, that the possibility of changes in the recognition of women and in society gets some force.

Keywords: femininity, beauty sense possession, internal and external beauty, girlish, blank, synesthesia, aesthetic point of view.

1. 서론

우리 현 사회에서 여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서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여성’이라는 어휘를 규정내리는 본질적인 요소들에 대해 잠정적으로나마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님의 침묵에서 여성의 모성이 이상화된 여성성으로 찬양되고 신비화되는 동시에 감성이 지배적인 여성화자를 통해 부정적으로 재현된다. 지성/감성의 분리가 각각 남성성/여성성의 개념과 결부되면서 여성성은 남성성에 대한 보충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경우 여성성은 수동성, 즉 남성에 의존하는 미성숙함으로 뜻하게 된다.(이민호 2006)

남성은 여자의 말을 가로채기, 화제의 주도, 침묵 따위로 대화를 지배하면서 경쟁적 대화를 추구하지만, 여성은 맞장구치기로서의 반응, 상대방 대화에의 지원반응을 보여주며 경험공유적, 상호치료적인 협동적 대화를 추구한다.(민현식, 1995)

결과적으로 물리적인 편리함과 효율적인 발전을 가져온 건축환경이지만 시간을 두고 생활을 거듭하다 보면 우리의 감성 깊은 곳이 웬지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이는 우리의 도시가 너무 차고 건조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발전이라는 대의명목으로 효율성만을 고려한 건축환경이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너무 남성적인 환경이다. 바꾸어 말해 여성성의 결핍으로 균형이 깨어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김해정, 1997)

문학, 어학,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서 남성성은 지성(효율), 지배 등의 용어로, 여성성은 감성(감정), 의존(협동) 등의 용어로 설명이 되었다. 이

는 남성들은 법칙과 권리가 강조되는 정의의 윤리에 따르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여성들은 관계와 책임이 강조되는 보살핌의 윤리에 따르는 경향이 있다는 길리건(Carol Gilligan)의 지적¹⁾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연구영역이 다른 사람들이 이처럼 비슷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것은 여성에게 기대되는 특성들이 특정 영역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성역할 정형화는 여성을 때로는 수동적이고 복종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희생적이고 따뜻하다고 부르기도 한다. 본고는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다양하게 바라본 여성다움, 즉 여성이 지니고 있다고 여겨지는 특성들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어휘를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

2. 선행연구 정리 및 연구의 대상

2.1 선행연구 검토 및 정리

지금까지 여성이 여성다운 이유를 정리한 것은 여성학 논문을 통해서였다. 이들을 크게 나누면 여성의 특성을 연구한 것과 대중매체에 담긴 여성의 이미지를 연구한 것으로 분별되는데, 먼저 여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는 허라금(1999)이 대표적이다. 여기서는 정신적으로 고상하지 못함, 예민한 감수성, 유순한 태도를 여성의 특징으로 들었다.

두 번째 여성의 이미지를 연구한 분야에서는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변화하면서 남에게 비치는 여성의 이미지와 여성 스스로 인식하는 자아의 이미지에도 변화가 나타났음을 보고하는 논문들이 줄을 잇고 있다 즉, 여성에게 주어졌던 전통적인 이미지인 가정주부, 현모양처에 스며든 남성의존적이며 전통적인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새로운 여성상을 사람들이 원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연구결과(최윤주, 2007:107)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허라금(1999)으로 대표되는 여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들 역시 새롭게 정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려주는 결과이다.

국어학에서는 언어기호에 의해서 지칭되거나 표현되는 대상의 차원에서

1) Gilligan(1982, 1988)에서 논의한 내용으로 『여성주의 철학 2』(2005:63)를 참조.

여성이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를 연구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왔다.²⁾ 그 결과 유창돈(1966)은 이조 초기에 평어로 쓰이던 여성지칭어가 점차 비어 내지 욕으로 차등어화되는 현상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김진우(1985) 역시 한국어에서 나쁜 귀신은 거의 모두 여성이고 이에겐 경멸하거나 모욕적으로 여자를 지칭하는 어휘가 꽤 많음을 들어 남존여비의 어휘와 용법이 남아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민현식(1995)에서는 여성 지칭어를 일반 지칭어, 품행성 지칭어, 직업성 지칭어, 외모성 지칭어, 성명 지칭어 등 다섯 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지칭어가 나타내는 여성에 대한 가치관을 설명하였다. 특히 남성과 달리 여성은 성품묘사어, 행동묘사어에 부정적 묘사어가 많아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이 많았음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함께 여성지칭어 역시 변화를 거듭하였음을 김창섭(1999)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30년대 간행된 『큰사전』부터 80년대 간행된 『우리말 큰사전』까지의 인성명사를 중심으로 어휘의 변화를 추적한 결과 남,여성항 균형형이 늘어나고 새로운 여성항이 출연하여 일반항으로 존재하는 것을 밝히고, 이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로 여성에 대한 평가에도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의의를 밝히었다.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는 차현실(1999)에서도 밝힌 바가 있다. 이 연구는 여성을 요사스럽고 재수 없고 불길한 것(김종택, 1978)이나 남성의 소유물이나 길들여져야 하는 동물로 보는 등 수동적이고 비주체적인 존재(전혜영 1999)로 보고 있었던 것과는 다소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 차현실(1999)은 일에 몰두해서 아름다운 여자,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여 내적 아름다움을 가꾸는 여자 등으로 형상화된 광고카피에 주목하였다. 그 결과,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외모에서 내적 아름다움으로 변화되고 있어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여성상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각기 여성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는 그들의 속한 위치에 따라 달리 바라보였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본고는 현재를 살아가는 20대 남녀가 생각하는 여성의 특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정리하고, 이들의 의미를 구

2) 여성이 여성다운 이유, 즉 여성다움을 여성 대상 묘사어를 중심으로 구조화해 보려는 본 논문의 목적상, 여성대상의 지칭어와 여성 대상 표현 전반을 둘러싼 연구사 정리를만 한정하였다.

체적인 예문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그들 사이의 관계를 체계화해 보려고 한다. 이러한 작업은 우리가 현재 여성성의 상징체계로 이해하고 있는 것들의 내부구조를 알려주는 바가 될 것이다.

2.2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여성이 가진 성질, 특징을 나타내는 어휘들을 조사하여 그들의 의미를 분석해 보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우선 ‘여성답다’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을 조사하였다.³⁾ 자유롭게 연상되는 단어망은 그들의 숨겨진 의식을 드러내는 단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어사전의 표제어를 기준으로 하면, [보기에 여자의 성질을 가진 데가 있다]의 ‘여성스럽다’를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마땅하다. ‘여성답다’는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는 여성이 가진 성질, 특징을 표상하는 어휘로 ‘여성스럽다’보다는 ‘여성답다’가 더 적절하다고 보았다. 다음은 ‘(여성)답다’와 ‘(여성)스럽다’의 의미차를 보이는 예이다.

- (1) a. 대설 {절기답게/*절기스럽게} 이른 아침부터 함박눈이 내렸습니다
- b. 어버이로 된다는 것은 쉽지만 (어버이답게/*어버이스럽게)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 c. 나는 고개를 가우뚱 하면서 사람 사는 거란 무엇일까 하는 황당한 생각이 생각답지 않게 손끝을 저리게 하는 (어른스러운/*어른다운) 기분을 느끼곤 했다
- d. 철원 네를 둘러싼 기층민중어 그러니까 (속답스런/*속답다운) 언어군에 관한 것

3) 물론 남성답다/여성답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조사, 연구한 민현식(1995)의 논의도 있었지만, 연구의 방향이 다소 다르다. 민현식(1995)에서는 여성대상어의 범위를 여성지칭어와 여성묘사어, 여성관련어 셋으로 나누어 각 어휘들을 분류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본고와 연구대상이 중첩되는 여성묘사어 역시 긍정적/부정적 묘사어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들의 의미자질을 세분화하여 의미체계화를 시도하려는 본고의 연구목적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한 성질이 있음]의 의미를 더하는 접미사 '-스럽다'와 [성질이나 특성이 있음]의 의미를 더하는 접미사 '-답다', 둘은 사전상의 정의로는 구별이 쉽지 않다. 그러나 (1-a,b)에서는 '-스럽다'가 (1-c,d)에서는 '-답다'가 사용제약을 받는 데 주목하여 의미를 구별할 수 있다. a,b는 대설은 눈이 많이 내리야 하는 날이며, 어버이라면 이러저러한 것을 갖추어야만 한다고 해석이 되어 '-답다'는 그러한 성질이나 특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접미사라 할 수 있다. 즉 '-답다'는 어떤 성질이나 특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질이나 특성이 '있어야 함'을 이르기 때문에 사회에서 살아나가기 위해 여성이 가져야 할 성질이나 특성을 표상하는 어휘로 '여성답다'를 내세우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이에 반하여 '-스럽다'는 아이가 어른이 가질 수 있는 고민을 해본다는 가기층민중어가 속담처럼 느껴지는 등 원래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을 가졌을 때 접미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⁴⁾. 따라서 본래 여성이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찾아보려는 본고의 목적에는 '여성답다'가 더 적절해 보인다.

더군다나 사회학에서 거론되는 젠더로서의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보아도 '여성답다'를 선택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젠더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남녀의 정체성, 즉 사회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길들여진 성(性)이라 정의되며, 흔히 여성다움, 남성다움을 통칭하고 있으므로 '여성다움'을 키워드로 삼아 사회문화적으로 규정된 여성성이 어떠한지를 살피려고 하였다.

2007년 8월 신촌 일대에서 20대 148명(남성 60명, 여성 8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와 2008년 11월 인터넷 상에서 110명(남성 50, 여성 6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합한 것으로 '여성다움'하면 연상되는 형용사 목록은 다음과 같다.

청순하다, 상냥하다, 부드럽다, 순수하다, 아름답다, 단아하다, 예쁘다, 참하다, 따뜻하다, 암전하다, 우아하다, 착하다

2007년 조사에서는 따로 품사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용사 목록은

4) 송철의(1977)에서도 'X스럽다'의 X가 [+Human]의 체언일 때는 [그와 같이 못났다]의 뜻으로 쓰이며, X가 높은 신분이나 지위의 [+Human]체언일 경우는 [그만한 자격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뜻으로 쓰인다고 지적하였다.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높지 않았다. 심지어 여성과 남성을 합쳐 1번 나온 항목(현명하다, 해맑다, 온화하다, 섹시하다, 단정하다, 청결하다, 조심스럽다, 아기자기하다 등)도 있었다. 그러나 본고는 형용사가 대체로 ‘-하다’, ‘-답다’를 접미하고 있었음에 주목하였는데, ‘-하다, -답다’의 [성질이나 특성이 있음]은 여성다움 즉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있어야 할 특성’라는 의미와 통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8년 인터넷 상에서⁵⁾ 형용사만으로 한정하여 ‘여성다움’하면 연상되는 단어를 조사, 함께 반영하였다. 그리고 빈도수가 높은 12개의 단어를 골라 이들의 의미를 카이스트, 세종 말뭉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고, 이들 어휘들에 체계를 부여해 보려고 한다.

3. 미감의 향유

날마다 보는 우리의 얼굴은 눈, 코, 입 등 개별요소 하나하나가 독특한 인상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개개인의 성격과 더불어 한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앞서 ‘여성다움’을 나타내는 형용사 목록에 해당하는 어휘들은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성품, 행동, 그의 태도 등이 신체의 개별요소들과 어우러져 대상을 평가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며, 특히 이를 수용하는 자가 그의 정서적인 자극 상태에 유쾌하게 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 (1) 가. 예쁘고 푹푹해서 선생님에게 귀여움을 받고
 나. 찰찬 색시감이 있어요. 집안도 좋고 인물도 좋아요
 다. 높은 분다운 우아한 몸가짐은 다른 나라 왕과 귀족들의 부러움의 대상
 라. 웃는 얼굴은 봄바람처럼 부드러웠다

위 예문의 밑줄 그은 어휘들은 선생님에게 귀여움을 받을 수 있으며(가), 일등 신붓감으로 추천받을 만큼(나) 그리고 다른 이가 부러워하고(다) 환영할(라)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자극을 받은 사람들이 유쾌하게

5) 설문조사는 사이월드 개인홈페이지에서 이루어졌으며, 2007년 길거리 설문조사와 동일하게 ‘여성다움’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연상되는 단어 3개씩 적어두는 방식을 택하였다.

응할 수 있는 상황이며, 따라서 예쁘다, 참하다, 우아하다, 부드럽다는 정서적인 자극이나 때로는 놀람의 상태에 유쾌하게 응하는 미감적 향유(하선규, 2006:303)⁶⁾를 공통의미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에게 불쾌하게 다가오는 느낌들과 대조되며, 부정적인 테서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함을 묘사한다.

- (2) 가. 상냥하고 깔끔했던 평소의 명희가 그럴 수 없이 우둔하게 느껴졌다
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갓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현재의 부정적인 느낌과는 다른, 예전의 모습을 ‘상냥하다’로 묘사하거나 (가), 굳은 마음을 없애고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에 ‘부드럽다’가 사용되어 (나) 이들이 유쾌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어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감적 향유가 유쾌한 감정의 지속이라고 해서 향유의 대상이 반드시 보편적으로 즐거운 것일 필요는 없다. 때로는 슬프고 고통스런 신체느낌에 대한 미감적 향유도 가능하며, 때로는 개인적인 것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은 자신만의 미감을 향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 (3) 가. 갑자기 죽음의 추억이 아름다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나. 오히려 바락바락 대드는 그 아이가 더 예뻐 보이기까지 했다
다. 시원시원하기보다는 간결한 눈썹과 조그만 입술생김은 단아한 정서에 맞아
라. 단순히 비싼 옷을 골라 입는다고 해서 우아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다

죽음이라는 고통스런 기억이 미적인 것으로 승화될 수도 있으며(가) 다른 이들과 달리 경박스럽게 보일 수 있는 모습이 즐거움을 줄 수도 있으며(나), 현대의 미의 개념에서 비껴나 있는 것일 수도 있다(다). 따라서 비싼 옷으로 치장한다고 해서 긍정적인 느낌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 미감적 향유는 느낌을 향유하는 주체마다 미감을 느끼는 장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대상은 바라보는 주체의 시선에 따라 즐겁게 향유할 수도 있고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본고의 연구대상인 여성다움의

6)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하선규(2006), 「미감적 경험의 현상학적 제정의」를 참조.

관련 어휘들은 대상이 가진 특징을 유쾌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공통적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 어휘의 공통의미로 [미감의 향유]를 내세운다.

3.1. [-내면과 외면의 포괄적 묘사]

본고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여성다움 관련 어휘들이다. 그렇다면 ‘여성다움’과 관련한 어휘들에 담긴 미감은 여성의 어떠한 자질로 귀결되는가? 사전에 실린 ‘여성’의 의미기술에는 별다른 정보가 들어있지 않다. 단지 성년이 된 여자를 이르는 말이란 첨언이 현재 ‘여성다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시해 주고 있을 뿐이다.

여성

1. 성(性)의 측면에서 여자를 이르는 말. 특히, 성년(成年)이 된 여자를 이른다. ㄴ 여07(女)
2. 『언어』서구어(西歐語)의 문법에서, 단어를 성(性)에 따라 구별할 때에 사용하는 말의 하나.

따라서 본고에서는 여성학자, 국문학자들이 기준으로 제시하였던 외양, 성품, 태도를 기준에 반영하려 한다. 소설을 쓸 때 작가가 만들어낸 인물이 생생하게 살아 숨 쉬게 하기 위해선 외양 묘사에 신경을 써야 하며 이것이 흠족치 않을 때는 내면 묘사에 치중하는 것처럼, 인물의 평가는 외면과 내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여성의 평가 역시 외면과 내면으로 나뉠 것으로 판단한다.⁷⁾

7) 사전의 정의에 기초하여 보아도 외면(외모, 태도, 행위 등)과 내면(성질, 성품 등)을 축으로 삼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1. 청순하다: 깨끗하고 순수하다.
2. 상냥하다: **성질**이 짝짝하고 부드럽다.
3. 부드럽다: **성질이나 태도**가 억세지 아니하고 매우 따뜻하다.
4. 순수하다: ① 전혀 다른 것이 섞이지 아니함.
②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없음.
5. 아름답다: ① (보이는 대상이나 음향, 목소리 따위) 즐거움과 만족을 줄 만하다.
② 하는 **일이나 마음씨** 따위가 훌륭하고 가룩한 데가 있다.

외면과 내면 묘사 중에서 미감의 확인이 가장 손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외적인 미이다. 이는 외형상으로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인데, 아래에서 보듯 외적인 미감만을 나타내는 어휘도 있지만 내면과 외면 모두를 묘사하는 것이 가능한 어휘도 존재한다.

- (4) 가. 나이 스물이 될락말락하고 용모도 단아하며
 나. 외모가 예쁜 여성보다는 마음이 예쁜 여성이 더 매력적인 경우

(4)는 사람의 외모가 가진 미감을 형상화한 ‘단아하다’(가)와 외모와 성품이 모두 대상으로 나타난 ‘예쁘다’(나)의 예이다. 이들은 대상이 주는 미감을 표현하였음은 동일하나 ‘단아하다’는 용모만이, ‘예쁘다’는 외모와 성품이 모두 대상으로 나타나 둘은 내면과 외면의 포괄적인 묘사가 가능한지 아닌지의 여부로 나눌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감을 향유하는 것이 특징인 어휘들은 다시 내면과 외면을 포괄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약을 받는지를 따져 나누어 보는데, 대다수의 어휘들과 달리 ‘우아하다/단아하다/청순하다/순수하다/착하다’는 제약을 받고 있어 변별적이다.

- (5) 가. 옆에서 차를 끓이는 여자가 기품 있고 우아해 보였다
 나. 이 단아하고 깔끔한 무대 구조물은 주요 장면들이 처리되는 연기 공간으로서

-
6. 단아하다: 단정(**우차림이나 몸가짐**이)하고 아담(고상하고 담백)하다.
 7. 예쁘다: ① 생긴 **모양**이 아름다워 눈으로 보기에 좋다.
 ② 행동이나 동작이 보기에 사랑스럽거나 귀엽다.
 ③ 아이가 말을 잘 듣거나 행동이 발라서 흐뭇하다.
 8. 참하다: ① **생김새** 따위가 나무랄 데 없이 말쑥하고 곱다.
 ② **성질**이 찬찬하고 얌전하다.
 9. 따뜻하다: ① 덥지 않을 정도로 온도가 알맞게 높다.
 ② **감정, 태도, 분위기** 따위가 정답고 포근하다
 10. 얌전하다: ① **성품이나 태도**가 침착하고 단정함.
 ② 모양이 단정하고 겹잡다.
 ③ 일하는 모양이 꼼꼼하고 정성을 들인 데가 있다.
 11. 착하다: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여질다
 12. 우아하다: 고상하고 기품이 있으며 아름답다.

- 다. 청순한 외모의 텔런트 000가 각광을 받고 있다
- 라. {우아한, 단아한, 청순한} {*성격, *감정, *성품, *마음씨}
- 마. 때 묻지 않은 순수하고 착한 마음씨를 가진 것을 늘 자랑스러워 했다
- 바. {순수한, 착한} {*용모, *외모, *맵시, *손짓}

(5-가,나,다)는 여자의 행위, 외모나 무대 구조물의 풍경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들이 [+외면]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5-라)처럼 내면을 수식하는 것은 어색하다. (5-마)의 ‘순수하다, 착하다’는 마음씨를 수식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내면이 주 표현대상이다. 따라서 (5-바)처럼 외면을 나타내는 다양한 어휘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 이처럼 외면과 내면의 포괄적 묘사에 제약 받고 있는 어휘들은 [-외면과 내면의 포괄적 묘사]로 구분하고, 다시 ‘우아하다, 단아하다, 청순하다’는 외면만을 표현대상으로 하며 ‘착하다, 순수하다’는 내면만을 표현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근거로 이들 두 부류를 [±내면묘사에 제약]의 여부로 분류한다.

3.1.1 [±내면묘사에 제약]

의미상 밀접하게 연관된 어휘들 중에서 ‘착하다’순수하다’는 외모나 몸가짐과는 상관이 없이 내면에서 우리나라는 미감만을 표현([-내면묘사에 제약])하는 것이 특징적임을 살펴보았었다. 그러나 둘 사이에도 차이는 있어, ‘순수하다’에는 ‘착하다’와 달리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백지상태를 의미하는 예문이 다수 존재한다.

- (6) 가. 지난날의 그 풋풋하고 때 묻지 않고 순수했던 시절
 - 나. 달리 말하면 티 한 점 얼룩져 있지 않은 순수 그것입니다.
 - 다. 수녀원 학생 같은 수줍은 젊음-속세를 모르는 타고난 순수성-에서 오는
 - 라. 언제까지 당신이 물처럼 깨끗하고 순수하게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 (7) 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억울한 사람도 도와주는 착한 사람이야
 - 나. 어릴 적부터 마음이 착해서 남 어려울 때 잘 도와주더니

(6-가,나,라)의 ‘때 묻지 않고, 티 한 점 얼룩져 있지 않다’ 그리고 ‘물처럼 깨끗하다’에서 알 수 있듯이 ‘순수하다’는 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속세 즉 욕심과 거짓을 배우게 되는 세상에선 태어났을 때의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6-다) 그런데 이러한 아이의 백지 같은 마음 상태는 ‘착하다’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착하다’는 마음이 선한 사람, 마음씨가 바른 사람을 묘사하고 있을 뿐이다. (7-가, 나)를 보면, 개개인의 마음가짐이 올바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바탕이 됨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착하다’는 ‘순수하다’의 백지 같은 심성까지 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둘은 [+백지(같은)심성]을 가지는지로 나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내면묘사에 제약], 즉 용모, 몸가짐, 맵시, 태도 등에서 다른 이에게 유쾌함을 선사하는 어휘들 ‘우아하다, 단아하다, 청순하다’를 살펴보려 하는데, ‘청순하다’의 용례를 검토하면 여성 즉 ‘성년이 된 여자’를 발견할 수 없음이 특징적이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어휘들은 모두 여성다움을 나타내는 것이며, 따라서 여성다움의 정의에서 보듯 일정 연령 이상에 도달한 여성들이 그 대상일 것으로 기대되는데, ‘청순하다’는 예외적이다.

(8) 가. 덜 익은 풋과일 같은 청순미

나. 여고생 같은 청순함이 몸 전체에서 풍겼다

다. 앳되고 청순해 보였다

라. 그녀의 물방울 같은 청순한 아름다움에

(8)에서 보듯 ‘청순하다’에서 풍기는 미감은 덜 익은 풋과일 같은 것이다. 즉 맑고 깨끗한 물방울(라) 같이 아직 세파에 시달리지 않은 앳된(다)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 애티를 지닌 여자 아이, 여고생(다) 등 성년이 되지 못한 사람들로 비유된다.

이에 반해 ‘우아하다, 단아하다’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년에 도달한 여성들이 표현대상에 들어있다.

(9) 가. 귀부인들에게 우아한 품위를 지니게 하였던

나. 뒷모습만으로 기대하던 이상의 우아하고도 원숙한 여인이었다

- 다. 얌전하고 단아한 가정부인이 매만져 나가는 살림집이요
- 라. (색시가) 나이 스물이 될락말락하고 용모도 단아하며

(9-가,나)는 부인, 이미 성숙(원숙)한 여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우아하다’의 예이며, (9-다,라)는 가정부인, 결혼적령기의 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단아하다’의 예이다. 따라서 청순하다, 우아하다, 단아하다, 이들 세 어휘는 [+앳됨]을 기준으로 나누어 본다.

그렇다면 성숙한 사람의 겉모습에서 느껴지는 미감을 표현하는 ‘우아하다’와 ‘단아하다’는 어떤 의미로 구별이 될까? 이들은 성별 사용의 제약은 나타나지 않는다.

- (10) 가. 세련되고 우아하고 섬세한 신사조
- 나. 우아하고 귀공자 같은 그의 모습
- 다. 라빈의 인상은 박정희와 흡사했다. 단아하고 소탈한 모습이.
- 라. 선비로서 단아하거나 경험 많고 나이 많은 자

(10)은 신사, 귀공자, 라빈, 선비처럼 일정 이상의 연령에 도달한 남성을 대상으로 한 ‘우아하다/단아하다’의 사용예로, 둘 모두 성차에는 구애를 받지 않고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우아하다, 단아하다’는 몸짓, 말투, 행동 등에 배어난 품위를 나타냄이 공통적이다. 이는 ‘雅’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음에서 유추할 수 있는데, 우선 ‘雅’의 사전적 의미와 이의 사용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1) 가. <한한대사전>
- 雅 ‘正’ 곧 ‘법도에 맞다’ ‘바르다’
- ‘不俗’ 곧 高雅하여 속되지 않다(高雅不俗)
- 나. 雅語바르고 우아한 말, 표준어
- 雅言覺非 조선 정조 때에 정약용이 지은 어원 연구서
- 당시 한자의 사용에 착오가 많아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저술
- 雅言 화서선생문집(1899)의 부록 이름.
- 19세기 후반 서양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바른 사상을 저술

(11-가)는 아(雅)는 바른 것, 속되지 않은 것을 이르는 말로, 인간의 인품/도덕성과 결부되어 쓰였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11-나)를 보면, 인간의 사상이든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이든 그것이 바른 것, 법도에 맞는 것임을 의미하는 용어로 ‘雅’가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도덕적 우월함에 기반하여 사용되던 ‘雅’가 심미적인 판단을 위해 이용되어 ‘우아하다, 단아하다’는 인간이나 사물이 지닌 격이 높은 인상 즉 품위를 묘사하고 있다.⁸⁾ 아래는 두 어휘의 사용예로 다른 이들과 다른, 따라서 품위, 품격 등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움을 보이고 있다.

- (12) 가. 한 순간의 불협화음도 없는 우아한 경지를 표현하고 싶었다
 나. 별로 크지 않으나 단아하게 꾸며진 2층집이다
 다. 고상하고 우아한 어휘를 골라서 말을 하면 품위가 있는 사람이라 하고
 라. 동양란의 단아한 품격을 잃게 된다

사람이나 사물이 지닌 고상하고 격이 높은 인상을 ‘우아하다/단아하다’로 묘사하고 있는 예이다. 선율, 멜로디, 리듬, 하모니가 대등하도록 면밀히 구성하여 남다른 무대를 꾸미려 하거나(12-가) 인도 봄베이에 가서 만날 수 있는 간디 선생이 18년간 살았다는 집(12-나)에 대한 묘사로, 이들에게서 평범한 보통의 것과는 구별되는, 격이 다른 인상을 받게 된다. 따라서 ‘우아하다/단아하다’는 문장 내에서 ‘품위’와 ‘품격’과 함께 나타난다.(12-다, 라)

대상이 지닌 남다른 인상, 격이 느껴지는 인상을 이들에게서 공통으로 취할 수 있었다면, ‘우아하다’ ‘단아하다’는 결국 남다른 격을 느끼는 양상이 서로 다른 데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듯하다. 이는 ‘우아하다’가 신사, 귀공자, 귀부인, 목사 등을 묘사하고 (13-다, 라)처럼 ‘(근육이)잘 발달되다, (호텔처럼)수준이 높다’ 등 근접하기 어려운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비하여, ‘단아하다’는 선비, 가정부인 등을 수식하고 (14-다,라) ‘소탈하다’ ‘크지 않다’와 같이 꾸밈이 없고 필요한 것만 배열해 놓아 수수한 것이 대상인 것과 대조적

8) 과거에는 도덕적 우월함은 양반이나 귀족 등 식자층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따라서 ‘우아하다, 단아하다’의 용례에 귀부인, 신사, 선비 등의 어휘가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배경에 기인한 듯하다.

인 데서 알 수 있다.

- (13) 가. 세련되고 우아하고 섬세한 신사조
 - 나. 마치 귀부인이라도 된 표정으로 우아하게 돌아보았다
 - 다. 잘 발달된 흰색의 男體를 보면 무어라 할 것인가, 우아하다고 할 것이다
 - 라. 호텔 수준의 엄선된 메뉴와 시설, 세련되고 우아한 분위기
- (14) 가. 선비로서 단아하거나 경험 많고 나이 많은 자는
 - 나. 제비집은 암전하고 단아한 가정부인이 매만져 나가는 살림집이
 - 다. 라빈의 인상은 박정희와 흡사했다. 단아하고 소탈한 모습이
 - 라. 별로 크지 않으나 단아하게 꾸며진 2층집이다

이러한 모습은 아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 (15) 가. 우아하고 정중한 아름다움을 지닌 궁중음악에 대한 평가
 - 나. 여기저기 높고 우아한 궁궐이 즐비하였다
 - 다. 초창기의 한글 글꼴에는 단아한 아름다움이 있다
 - 라. 정연하고 단아하게 석대를 쌓고 추녀와 현판에 금물을 입힌 금불각

남들과 다른 능력이나 지위를 가진 자를 묘사하던 ‘우아하다’는 (15-가,나)에서도 대중, 서민의 문화와는 다른 궁중음악, 궁궐을 묘사하는 데에 쓰였다. 그에 비해 ‘단아하다’는 네모반듯한 틀에 나란히 놓인 한글의 글꼴이 가져다 주는 미감, 요란하게 장식을 더하지 않고 돌만 가지런히 올린 석대가 가져다 주는 미감을 표현하고 있다.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 깔끔한 매력, 그래서 단정함⁹⁾까지 가질 수 있는 미감이 ‘단아하다’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9) 말뚝치가 아니라 카페에 실린 글에는 사람을 상대로 ‘단정하다’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아하다’의 예시도 있었다.

(1) 각진 형: 단아한 앞머리는 어울리지 않는다. 단정하게 라인을 정리하면 얼굴의 각이 더욱 두드러져 보이기 때문

말뚝치에는 ‘단아하다’를 사람에게 적용시킨 경우가 너무 적어 적합한 예문을 고를 수가 없어 본문에 더 이상의 예문을 넣지 못했다.

따라서 ‘우아하다’의 정도를 넘어서는 대단함과 ‘단아하다’의 정도를 넘어 가지 않는 수수함을 살릴 수 있도록 두 어휘는 [소박함]을 변별자질로 삼아 구별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외면과 내면의 포괄적 묘사]에 해당하는 어휘들이 가진 변별적인 의미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미감 향유					
+외양과 내면 포괄적 묘사	-외면과 내면 포괄적 묘사				
	+내면묘사에 제약		-내면묘사에 제약		
아름답다, 예쁘다, 참하 다, 얌전하다, 상냥하다, 따뜻하다, 부드럽다	+앳됨	-앳됨		+백지	-백지
	청순하다	+소박함	-소박함	순수하다	착하다
		단아하다	우아하다		

3.2. [+외면과 내면의 포괄적 묘사]

인간의 모습은 우리의 감각을, 특히 시각을 자극함으로써 보는 이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하다. 따라서 시각에 포착된 대상이 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고통 받는 이웃의 아픔을 보살피는 따뜻한 손길에서, 사회의 모순과 맞서 싸우며 부르짖는 목소리에서 자극받고 그런 이들이 발산하는 미감을 형상화하기도 한다. 이처럼 인체 외부에서 느껴지는 물리적 자극은 시각 이외에도 청각, 촉각, 후각, 미각 그리고 통각까지 다양하다.

외면과 내면을 포괄하여 묘사하는 어휘들 중 오로지 상대방에게서 느낄 수 있는 미감을 시각에 의존하여 향유함이 특징적인 어휘들이 있다. ‘얌전하다, 참하다’가 그 대상인데, 외모, 자태 등을 보고 그의 내면까지 판단하는 정신 작용에서 미감이 발생하여 이를 향유함을 나타낸다.

- (16) 가. 한복을 얌전히 차려 입은 아가씨도 있었고
 나. 이 계집애가 얌전한 줄 알았더니, 속이 영 시커멓잖아
 다. 한 처녀가 물동이에 물을 길어 이고 참하게 지나가고 있었다

라. 얼굴이 복스럽게 부덕해 보이는 참한 인상이었다

(16)은 옷맵시(가), 몸가짐(다) 등 외형적인 모습이나 사심 없는 마음(나), 덕이 많은 성품(라) 등 내면에서 느껴지는 유쾌한 감정을 ‘얌전하다/참하다’로 표현한 예문이다. 이들은 옷을 차려입은 맵시나 걸어가는 자세, 태도, 용모 등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 표현대상이다.

그러나 ‘따뜻하다/부드럽다/상냥하다’는 청각, 촉각, 통각에서 번져오는 느낌이 정신작용으로 이어진 경우여서 앞선 어휘들과 구별된다.

(17) 가. 힘들 때마다 따뜻하게 잡아줬던 그녀의 손을 떠올린다

나. 국민의 따뜻한 애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럽고 상냥했으며, 최고의 목소리였다

라. 그녀의 열정과 일원단심과 부드러운 마음씨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마. 우리가 친해질 수 있었던 것은 영화의 상냥한 마음 때문이었다

(17-가)는 ‘따뜻하다’가 마주잡은 손길에서 마음을 전달받고 위안을 가지게 됨을 보이고 있으며, (17-다)는 ‘부드럽다, 상냥하다’가 귀로 전해지는 자극에 즐거움 감정을 가지게 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해지는 신체느낌은 (17-나, 라, 마)처럼 애정, 마음, 마음씨 등 심적 느낌까지 나타낸다.

감각기관을 통해 얻은 이러한 신체느낌이 감정으로 의미영역을 넓혀가는 것은 ‘눈부시다, 손꼽다, 귀담다’ 등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본고는 상대방의 외면과 내면에서 느껴지는 미감을 묘사하는 어휘들은 우선 바라보는 것인지([-반응감각의 다양함] 우리의 여타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지([+반응감각의 다양함])로 나누어 본다.

3.2.1. [-반응감각의 다양함]

앞선 절에서 ‘얌전하다, 참하다’는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 표현대상임을 말하였다. 특히 이들은 아래의 예처럼 행실이 바른 사람 즉 행위, 태도 등 시각을 자극하는 모습이 예의에 맞는, 그래서 유쾌한 감정을 가지게 하는 경우

에 나타난다.

- (18) 가. 압전한 개가 먼저 부뚜막에 오른데여
 나. 압전한 색시가 있어. 말도 고분고분 잘 듣고
 다. 참하게 빗어 넘긴 머리가 인상적이었던
 라. 여기서 참한 곳이 있으면 시집이나 가지

행실이 바른 사람(18-가)이나 외양이 흐트러짐이 없이 말끔하여(18-다) 보는 이로 하여금 유쾌한 감정을 안겨줄 때 사용되는 ‘압전하다, 참하다’의 예이다. 또한 말을 거스르지 않는 유순함이 주는 미감(나)을 ‘압전하다’로 표현하거나, 호평을 자아내는 좋은 성격(라)을 ‘참하다’로 묘사하였다. 따라서 이들 어휘들은 상대의 성품이나 외양이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바른 것임이 공통되는 의미라 하겠다.¹⁰⁾ 그런데 ‘압전하다’는 공통 의미에 더하여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 (19) 가. 전통적으로 압전하다는 것은 웃어른 말씀을 잘 듣고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말한다
 나. 다른 소수민족들처럼 문제를 안 일으키고 압전하게 살고 있었다
 다. 교구민들은 항의하지 않고 압전히 순응했다
 라. 각서 쓰고 압전히 있겠어 아니면 공사를 다시 시작할까

(19)는 소수민족, 교구민(종교의 전파, 신자의 지도 따위를 위하여 편의상 나누어 놓은 일정 구역 내의 사람들), 채무자처럼 다른 이들에게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묘사 대상이다. 따라서 이들 속에 사용된 ‘압전하다’는 (19-가)처럼 시키는 대로 한다는 순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순종의 여부에 따라 ‘압전하다’와 ‘참하다’가 나뉘는 것으로 정리한다.

10) 올바른 마음가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착하다’의 의미와 겹친다. 이는 이들이 ‘보는 것’으로 미감을 느끼고 있으며 따라서 ‘올바르다’는 의미는 시각을 통해 판단되는 기본적인 것으로 보인다. 사물을 관찰하고 파악하는 기본자세를 뜻하는 시각(視角)은 물리적으로 물체에서 눈에 이르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뜻한다. 따라서 ‘눈’을 통한 관찰은 ‘합당하다, 올바르다’는 기본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2.2 [+반응감각의 다양함]

앞에서 촉각(손길), 시각(미소), 청각(목소리) 등 다양한 감각기관을 통해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었을 때 ‘따뜻하다, 부드럽다, 상냥하다’를 사용함을 보았었다. 이들은 의미의 공유뿐만 아니라 아래에서처럼 성별이나 연령의 제한 없이 두루 사용되고 있었다.

- (21) 가. 남편이 옆에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 주었다
 나. 중요한 것은 수진양의 가슴이 따뜻하다는 점이다
 다. 청소년의 마음을 맑고 부드럽게 하고 의기를 북돋아주었습니다
 라. 여심을 울리는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
 마. 이 후보가 부드럽게 웃는 얼굴이 신문에 실렸다

이들 세 어휘는 성별의 제약이 없이(남자(21-가,라) 여자(21-나)) 그리고 연령에 상관없이 두루 사용되고 있다. 손동작, 목소리, 웃음 등이 후행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감각기관(시각, 촉각, 청각)을 자극하여 타인에게 즐거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다.

그러나 서로간의 의미영역에 차이가 있어 아래에서 보듯 사용 환경에 제약을 가지는 어휘도 있다.¹¹⁾

- (22) 가. 누구보다도 {따뜻하게/부드럽게/상냥하게} 미소 지을 줄 아는 사람이야
 나. 내민 손을 {따뜻하게/부드럽게/상냥하게} 잡아주니
 다. 옆에 앉더니 어깨를 {따뜻하게/부드럽게/*상냥하게} 감싸 안으며
 라. 대지는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다/*부드럽다/*상냥하다}
 마. {따뜻한/*부드러운/*상냥한} {애정, 호의, 동정}

세 어휘 모두 ‘(미소)를 짓다’/‘(손으로)잡다’와는 제약을 보이지 않으나, ‘(어

11) 이들 세 단어는 원래의 의미에서 새로운 의미로 변화한 예들이다. ‘따뜻하다’는 온몸에서 전해지는 자극을, ‘부드럽다’는 살갓을 통하여 바깥의 자극을 알아채는 기본의미에서 파생되었고, ‘상냥하다’ 역시 성녕 후다(手工하다)에서 의미가 변화(민현식, 1995:29)하였다. 출발에서부터 의미의 영역에 차이가 있었던 단어들이다.

깨를)감싸다’는 ‘상냥하다’가 제약을 보인다(다). 의미의 차이는 ‘따뜻하다/부드럽다’ 역시 마찬가지로여서 몸 전체에서 전하는 온기가 대상인 경우 ‘부드럽다’는 제약을 받는다(라). 그러나 몸의 일부분에서 전해지는 감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은 (22-가,나,다)처럼 제약이 없다. 12)

따라서 이들 세 어휘는 감각이 몸의 일부분으로 오는지(상냥하다, 부드럽다) 몸 전체인지(따뜻하다)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몸 전체로 온기를 전달하는 ‘따뜻하다’는 자연스럽게 ‘온정, 애정, 동정, 헌신’ 등 내면을 나타내는 다양한 어휘들을 수식하는 것이 가능하다(22-마).

감각이 몸의 일부분으로 전달되는 ‘상냥하다, 부드럽다’는 ‘손’관련 신체어의 의미전이의 과정상 상대와의 접촉으로 의미가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22-다)의 제약만큼 ‘상냥하다’는 ‘부드럽다’와 상대방과의 관계맺기에서 차이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부드럽다’는 상대방의 체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지를 발휘할 때 사용되고 있다.

- (23) 가. 지각한다고 욱박지르는 것보다 이렇게 부드럽게 주의를 주면 더 좋겠지?
 나. 힐책보다는 한마디의 찬사가 상대를 훨씬 부드럽게 해 주는 것이다
 다. 상대의 감정을 알아차렸는지 갑자기 타이르듯이 부드럽게 말했다
 라.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부드럽게 거절의 뜻을 밝힐 수 있다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말의 효과가 다를 수 있는데, (23)처럼 ‘부드럽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일종의 의사소통상의 묘미를 전달하는 어휘로 사용되었다. 특히 Lakoff(1973)가 말한 ‘부담을 주지 마라(don't be imposed)’의 의미와 합치되고 있어 ‘부드럽다’는 몸과 마음의 파동이 상대방의 체면을 덜 깎이게 하려는 섬세한 배려로 이어지고 있을 때 사용되는 어휘라 할 수 있겠다.

이와 달리 ‘상냥하다’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기분을 좋게 만들라’에 호소하고 있다.

12) 이는 ‘따뜻하다’가 온도어휘들 중에서 몸 전체로 온기를 느끼는 생리적 온도에 해당하는 어휘라 밝힌 천시권(1980)의 연구결과와도 합치되는 바이다.

- (24) 가. 아양을 떨면서 상냥하게 대답했다
 나. 공금한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바꾸며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다. 전혀 개의치 않는 듯 상냥하게 웃어 보이기까지 했다
 라. 상냥하지도 않고 무례한 여성들과 마주치게 된다

상대방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여도 웃음이나 목소리, 어조 등의 변화를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화자의 전략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이다. Lakoff(1973)에서 지적한 대로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면(Make a hearer feel good) 직설적인 어투보다는 훨씬 공손하게 받아들여 그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결국 [부담을 주지 말라]의 ‘부드럽다’와 [기분 좋게 만들라]의 ‘상냥하다’는 대화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로 구별되는 어휘로 정리한다.¹³⁾

3.3. 여성의 미감을 총칭적으로 표현하는 어휘

우리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지켜나가는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닦고, 행하고, 기르고, 베푸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내적으로 성숙해진 마음, 그 마음이 배어난 외모, 행위들이 가져다 주는 미감을 총칭적으로 표현하는 어휘들로 ‘아름답다, 예쁘다’를 들 수 있다.

우선 ‘아름답다’가 다른 어휘들의 의미를 총칭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제약이 없음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25) 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답지 않은 부분이 없다고 할 만큼
 나. 팔당호를 끼고 있는 마을 중 풍경이 가장 아름답다는 마현마을이다.

13) 앞서 보았지만 상대를 보면서 느끼는 즐거움은 주로 시각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미적 향유는 인간의 오감이 공히 반응을 보이는 것이며, 따라서 현대에 들어오면서 어휘의 확장이 필요해졌고, 여성다움의 관련어휘들에 청각, 통각, 촉각 등 여타 감각들이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신체에서 감정으로 전이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때문이다. 이들 중 생리적 온도를 표현 하였던 ‘따뜻하다’는 몸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결국 온정으로 변화하였으며, 몸의 일부분을 대상으로 하던 ‘부드럽다’와 ‘상냥하다’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로 의미 분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측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 관련 어휘들의 사용양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약한 자에게 내미는 손,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지 않은가?
 라. 사람을 위해서나 일을 위해서나 말없이 자기를 아름답게 바치는 소유자

인간(가), 자연(나) 등 표현대상에 제약이 없으며 외모(가), 태도, 성품(다) 행위(라) 등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어휘이다. 그런데 이때의 아름다움이란 신체의 각 요소들이 그리고 마음의 집집이 보기 좋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불합리한 계층구조를 이루고 있는 사회에서 모든 이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려는 마음’이 주는 미감을 ‘아름답다’가 표현하게 되고, 이러한 자기희생(라)은 궁극적으로 자기완성의 길로 이끄는, 가장 상위의 미감으로 발현되게 된다.

‘예쁘다’ 역시 다른 어휘들의 의미를 포괄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예쁘다’는 외모가 탁월하거나 외관이 빼어나서 즐거움을 주거나(가,나), 다른 이를 대하는 자세(다) 마음씨(라)가 다른 이에게 쾌감을 주는 상황에서 쓰인다.

- (26) 가. 처음 시집 올 때의 아내는 예쁘고 젊었었다
 나. 이은혜의 작업실이 예쁘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떠돌던 공공연한 사실
 다. 따지고 들고 비난하는 사람을 예쁘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 마음이 예쁜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더군다나 다른 어휘들이 옷맵시, 손과 발의 자세, 언행 등 용모를 제외한 인간의 외면에서 풍기는 미감을 강조하였다면, ‘예쁘다’는 얼굴과 몸매의 세부적인 요소들 하나하나를 수식대상으로 하여 사용범위가 가장 넓은 어휘이다. 아래는 외면 묘사가 가능한 ‘우아하다, 단아하다, 양전하다, 참하다, 따듯하다, 부드럽다, 상냥하다’가 일정 부분 제약을 받음을 보이는 예이다.

- (27) 가. 왜 {예쁜/*우아한/*참한/*부드러운} 머리칼을 잘랐어?"
 나. 그녀같이 {예쁜/*우아한/*참한/*부드러운} 귀를 가진 사람들은 귀를 뚫거나
 다. 소라의 {예쁜/우아한/*참한/*부드러운} 다리를 보면서
 라. {예쁜/우아한/*양전한/*부드러운} 코, {예쁜/*우아한/*참한/따뜻한} 눈,
 {예쁜/*우아한/*양전한/*따뜻한} 이마, {예쁜/*우아한/*양전한/부드러운} 입술 따위의 예쁜 부분들을 잔뜩 모아 놓고

(27)은 나머지 어휘들과 달리 ‘예쁘다’가 용모의 묘사에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으로 의미영역이 다른 어휘들보다 넓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쁘다’ 역시 다른 어휘들의 의미영역을 총칭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름답다’와 동일하다.

이는 ‘아름답다’와 ‘예쁘다’가 아래에서처럼 다른 어휘들로 묘사된 상황이 어떠어떠하다고 평가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데서도 드러난다.

- (28) 가. 이런 나까지도 따뜻하게 잡아주는 손길이 아름다웠다.
 나. 참한 색시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덕행이었다.
 다. 한복을 단아하게 차려입은 예쁜 소녀로만 남아
 라. 여느 처녀답지 않은 암전한 손 맵시가 무척이나 예뻤다.

따뜻한 손길, 참하고 단아한 여성 그리고 암전한 손 맵시가 아름답고 예쁘다고 평가받는 상황으로 이들 두 어휘가 다른 어휘들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보인다.

그러나 사전에서 [홀륭하고 가름한 데가 있다](아름답다)와 [사랑스럽거나 귀엽다](예쁘다)로 정의내린 데서 알 수 있듯 두 어휘의 의미는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

- (29) 가. 짧은 바지가 꼭 끼는 바지는 다리가 예쁠 경우 잘 어울린다.
 나. 고무장갑을 끼고 음식 만드는 요즘 새댁이 덜 예뻐 보이고
 다. 어려서부터 들어 왔던 {예쁘다는/*아름답다는} 칭찬은 커서도 지속된다
 라. 바보스럽고 어리숙한 것이 얼마나 {예쁜가/?아름다운가?}
- (30) 가. 슈베르트의 교향곡은 곡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나. 한 사람 한사람의 개별적인 봉사도 아름답고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 인류를 {아름답게/*예쁘게} 사회를 {아름답게/*예쁘게}라는 슬로건
 라. {아름다운/*예쁜} 희생의 의미를 남긴 먼지 간 이들을 위하여

(29-가,나)은 바지가 잘 어울리는 체형이나 음식을 만드는 새댁의 모습이 유쾌함을 가져다주는 경우 ‘예쁘다’로 표현한 예이며, (30-가,나)는 교향곡이나 사회봉사활동이 자신의 예술적/도덕적 정서에 부합하여 쾌감을 가져다주

는 경우 ‘아름답다’로 표현한 예이다. 둘 모두 쾌감을 가져다주는 것은 동일하나 (29-다,라)처럼 ‘예쁘다’만 되거나 (30-다,라)처럼 ‘아름답다’만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들의 예를 살펴보면, ‘예쁘다’만이 가능한 (29)는 ‘어려서부터’ ‘바보스럽다’와 같이 친진하기만 한 대상, 아직은 다듬어져야 할 대상이 특징적이나, ‘아름답다’가 가능한 (30)은 음악, 건축 등 예술적 조예가 있거나 남을 위해 희생하는 인격의 완성을 보이는 것(30-라)이 특징적이다. 즉 ‘예쁘다’는 단순히 마음이 선하여 즐거움을 주거나 보기에 즐거움을 주는 심미적 경험을 일으키는 미감이라면 ‘아름답다’는 칭찬할 만한 것, 인정을 받을 만하여 ‘완전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가장 상위의 심미적 경험을 일으키는 미감인 것이다.¹⁴⁾ 따라서 본고는 외양, 성품, 행동, 태도 등 인간의 다양한 모습에서 유쾌한 감정이 들 때 이를 총칭적으로 표현하는 어휘로 ‘예쁘다, 아름답다’를 설정하고 그들의 의미를 [심미적인 미], [완전한 미]로 구별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청순하다: [+미감향유], [-외면과 내면 포괄], [+내면묘사 제약], [+앳됨]
 - 단아하다: [+미감향유], [-외면과 내면 포괄], [+내면묘사 제약], [-앳됨], [+소박함]
 - 우아하다: [+미감향유], [-외면과 내면 포괄], [+내면묘사 제약], [-앳됨], [-소박함]
 - 착하다 : [+미감향유], [-외면과 내면 포괄], [-내면묘사 제약]
 - 순수하다: [+미감향유], [-외면과 내면 포괄], [-내면묘사 제약], [+백지]
 - 참하다 : [+미감향유], [+외면과 내면 포괄], [-다양한 감각]
 - 얌전하다: [+미감향유], [+외면과 내면 포괄], [-다양한 감각], [+순종적]
 - 따뜻하다: [+미감향유], [+외면과 내면 포괄], [+다양한 감각], [+전체]
 - 부드럽다: [+미감향유], [+외면과 내면 포괄], [+다양한 감각], [-전체],[+부담 제거]
 - 상냥하다: [+미감향유], [+외면과 내면 포괄], [+다양한 감각], [-전체], [-부담제거]
- (기분 좋음)
- 예쁘다 : [+미감향유], [+심미적인 미]
 - 아름답다: [+미감향유], [+완전한 미]

14) 이는 조정옥(2006:153)에서 역사적으로 미 개념을 세 가지로 나눈 것을 따른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미’는 1) 심미적이지만 시각적 사물에 한정되는 미 즉 형태와 색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 2) 순수한 심미적인 의미의 미 즉 선하여 즐거움을 주는 것, 보기에 즐거운 것처럼 심미적 경험을 일으키는 것 3) 가장 넓은 의미의 미, 칭찬할 만한 것, 인정을 받을 만하여 아름다운 것과 완전한 것이 동일한 상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4. ‘여성다움’ 연상어휘들의 조사결과가 갖는 문화적 함의

본 연구는 20대 남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다. 이들의 설문결과, 여성다움으로 연상되는 어휘들의 출현 빈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그 결과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여성	전체	남성
청순하다(32)	청순하다(62)	청순하다(30)
상냥하다(22)	상냥하다(34)	순수하다(20)
아름답다(22)	부드럽다(30)	예쁘다(19)
부드럽다(18)	순수하다(26)	상냥하다(12)
참하다(14)	아름답다(23)	부드럽다(12)
얌전하다(11)	단아하다(20)	단아하다(10)
단아하다(10)	예쁘다(19)	착하다(8)
따뜻하다(8)	참하다(16)	따뜻하다(6)
도도하다(7)	따뜻하다(14)	연약하다(5)
순수하다(6)	얌전하다(12)	우아하다(4)
우아하다(6)	착하다(12)	조신하다(4)
착하다(4)	우아하다(10)	섬세하다(3)

<표1> 여성다움의 연상 어휘 조사 결과¹⁵⁾

위 표에서 첫 번째로 두드러지는 특징은 남녀 분포 모두에서 ‘청순하다’가 1위에 오른 것이다. 또한 ‘상냥하다, 부드럽다’가 상위에 분포한 것도 눈에 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분포와 다르게 여성은 ‘아름답다’를 상위에 위치시키고 있음에 비해 남성은 ‘예쁘다’를 상위에 위치시키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남녀 모두 ‘상냥하다’와 ‘부드럽다’를 우선순위에 놓고 있음은, 이들이 [+미감향유], [+외면과 내면 포괄], [+다양한 감각], [-전체]에 해당하는 어휘들로 신체의 일부분에서의 접촉이 타인과의 관계 맺기로 의미변이한 어휘들임에

15) 괄호 안의 숫자는 빈도수이며, 남성과 여성 모두 12위까지 제시하였다. 따라서 남성의 대답 중에 참하다(2회), 아름답다, 얌전하다(1회)는 표 내에 제시되지 않았다.

주목할 만하다. 이는 남성의 자기중심적 경향과 대조적인 여성의 타자지향적 인성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사회에서 여성에게 타인과 접촉하는 훌륭한 대인기술과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일 것으로 기대하는 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¹⁶⁾

그러나 성숙한 여자를 이르는 ‘여성(다움)’을 제시어로 내놓고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녀 모두 공히 ‘청순하다’를 여성다움의 첫 번째로 연상했다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청순하다는 외양에서 앳됨이 풍기는 사람([+미감향유], [-외면과 내면 포괄], [+내면묘사 제약], [+앳됨])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어휘로, 이러한 결과는 여성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성숙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은연 중에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이 여성에게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아름다운’ 여성을 꼽았음은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남성이 생각하는 여성에게 필요한 특질, 자질로 ‘예쁘다’가 우선순위에 놓였음과 비교하면 더욱 바람직한 결과로 보인다. ‘아름답다’와 ‘예쁘다’는 다른 어휘들의 의미를 충칭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지만, 둘은 미감의 수준차를 반영하고 있는 어휘였다. 그런데 이 중에서 여성이 단순한 심미적 의미의 ‘예쁘다’와 달리 완전한 것과 동일하다는 의미의 ‘아름답다’를 선택하였다는 것은, 여성이 생각하는 여성은 좀 더 고차원적인 미감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자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인다.¹⁷⁾

4. 맺음말

지금까지 여성담론을 다루는 여성학자들은 전통 고수자로서의 여성, 가정을 지키는 여성 등의 여성상이 여진함을 지적하면서, 전통적인 어머니상 즉 순종적이며 가정을 지키도록 규범화된 질서를 여성에게 강요하는 사회의 움

16) 엘래슨, 『성의 사회학』, 이동원, 김미숙 공역(1989:110)

17) 앞선 어휘들의 의미를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이 연구는 설문에 응한 ‘남성/여성’이 ‘아름답다, 예쁘다’ 등의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우선은 20대 남녀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여성다움의 자질들에 어떤 어휘가 있으며, 이들의 개념적인 의미를 파악하여 그들의 체계화를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각 어휘별로 설문대상자들이 생각하는 의미를 조사하는 작업은 차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직임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근대 이후 새로운 가치질서의 유입에 따라 사회에서 제시하는 여성상에도 변화가 일어났고 육체적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성별분업을 뛰어넘은 이상적인 여성상마저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가지는 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언어에 그대로 투영되어 여성이 남성과 구별되는 특징, 즉 여성다움을 나타내는 어휘들 역시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였다. 물론 전통적 가족이 테올로기 아래에 놓였던 때와 동일한 가치들이 아직도 여성다움을 형상화하는 어휘 안에 존재하긴 하지만(청순하다), 최상위의 미감을 향유하게 해주는 대상이 들어가기도 하여(아름답다), 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사회의 변화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었다. 물론 남성다움을 둘러싼 어휘의 의미구조가 어떻게 짜여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여성다움을 나타내는 어휘들의 의미구조를 재평가해 보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이러한 예측은 검증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면관계상 후일 작업으로 남겨 둔다.

참고문헌

- 구현정(1995), “남성형-여성형 어휘의 형태와 의미 연구”, 국어학 25, 99-135.
- 김미숙, 이동원 역(1989), 성의 사회학(M. L. Andersen, *Thinking About Women*, 1983), 이대출판부.
- 김종택(1978), “한국인의 전통적인 여성관”, 여성문제연구 7, 187-203.
- 김진우(1985), 언어 그 이론과 응용, 탑출판사.
- 김창섭(1999), “국어 어휘체계에서의 남성향과 여성향”, 언어와 여성의 사회적 위치, 태학사. 87-108.
- 김혜정(1997), “현대 건축환경과 여성성의 결핍”, 건축97 12, 6-7
- 금교영(2001), “인격 개념의 변천과 인격개별성”, 철학연구 80, 92-114
- 민현식(1995), “국어의 여성어 연구”, 아세아여성연구 34, 7-64.
- 민현식(1997), “국어 남녀 언어의 사회언어학적 특성 연구”, 사회언어학 5-2, 529-587.
- 서정범(1969), “여성에 관한 명칭고”, 아세아여성연구 8, 79-108.
- 신정숙(1974), “한국 전통사회 부녀의 호칭어와 존칭어”, 국어국문학 65,66, 199-213.
- 송철의(1977), “파생어 형성과 음운 현상”, 국어연구 38, 1-106.
- 안옥선(2001), “보살핌에 있어서 도덕의식의 타자화와 자기회생에 대한 불교윤리적 제안”, 한국여성철학1, 1-30.

- 연효숙(2003), “한국 여성의 근대성과 근대 다시 쓰기”, 철학과 현실 56, 112-123.
- 유선영(1997), “잡지광고에 표현된 남성이미지 변호에 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 유창돈(1996), “여성어의 역사적 고찰”, 아세아여성연구 5, 37-72.
- 이민호(2006), “만해 한용운 시의 탈식민주의 여성성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1집, 57-79.
- 임지룡(2003), 국어의미론, 탑출판사.
- 임태섭(1994), “체면의 구조와 체면 욕구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32, 205-247.
- 전혜영(1999), “여성대상 표현에 나타난 여성의 사회적 위치”, 언어와 여성의 사회적 위치, 태학사. 111-155.
- 정기현(1997), “텔레비전 광고 속의 여성성과 남성성”, 한국방송학보 9, 215-250.
- 조정옥(2006), “현대미술문화에서 미적 기준의 문제”, 철학과 현상학 연구3, 149-179.
- 차현실(1999), “담화방식에 나타난 여성상과 여성의 사회적 위상”, 언어와 여성의 사회적 위치, 태학사. 159-229.
- 천시권(1980), “온도어휘의 상관관계”, 국어교육연구 12, 1-12.
- 최윤주(2007), “여성의 자아이미지 인식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의 전략적 접근”, 주관성연구 15호, 93-121.
- 하선규(2006), “미감적 경험의 현상학적 재정의”, 미학, 예술학 연구 23, 275-315
- 한국여성철학회 역(2006), 여성주의 철학 2(A. M. Jaggar & I. M. Young, *A Companion to Feminist Philosophy*, 2000), 서광사.
- 허라금(1999), “남성성에 관하여”, 여성이론 2, 1-25.
- 현택수(1997), “현대의 성정체성”, 경제와 사회 35, 89-105.
- Lakoff, R, *The logic of Politeness, or Minding your P's and Q's*, Proceeding of ninth regional of Chicago Linguistic Society, Chicago Linguistic Society, 1973, 91-99.

주소 :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120-750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1-1
 전화번호:02-3277-6731
 전자우편 : sy7440@ewha.ac.kr

원고 접수일 : 2009년 6월 30일
 원고 수정일 : 2009년 12월 25일
 게재 확정일 : 2009년 12월 27일